

# 독거노인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가스점검 및 가스 타이머 콕 무료 보급·설치 봉사, 2016년도 활동 막바지 단계



집에 가스 불을 켜놓고 외출해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경험이나 가스렌지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집안에 가스 냄새가 났던 경험은 어느 가정에서나 한두 번 겪었을 것이다. 특히 주의력이 떨어지는 독거노인의 경우 부주의로 인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가스점검 및 안전기기 무료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지는 경기도회와 서울특별시회 가스타이머 콕 무료 보급·설치 봉사활동을 동행 취재했다.

[편집자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물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화재가 4,616건에 달했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6년 상반기 전국 화재발생 현황자료에서도 전체 화재 중 56%가 부주의로 인한 것이고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것이 전체의 15%인 2,036건

에 달했다.

주거용 건물은 화재 발생 시 비주거용 건물의 화재보다 사망률이 5.6배나 높기 때문에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위험요소가 큰 것은 가정마다 조리용으로

설치된 가스설비이다. 바람이 불거나 국물이 넘쳐 불이 꺼질 경우 소화 안전장치가 없는 가스렌지에 서는 가스가 계속 누출된다. 때문에 조리 중에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스 사용 후에는 가스렌지에 부착된 콕이 잠겼는지 확인하고 중간밸브도 확실하게 잠그는 습관도 중요하다. 젊은 가정주부도 가스를 제대로 잠그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데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의 경우는 어떨까. 잠깐의 부주의로 가스가 누출되면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안전기기 제품이 있다. 바로 가스타이머 콕이다. 가스 타이머 콕은 가스로 인한 과열 및 가스누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다. 이 장치를 가스 중간밸브에 설치하면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한 약 20분의 시간이 지난 뒤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된다. 따라서 이 제품을 설치하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외출하거나 깜빡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가스타이머 콕 설치 전(왼쪽) 후(오른쪽)

### 가스설비공사협의회, 지난해 500세대 올해 1,000세대에 무료 보급사업 펼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이두형)는 지난해부터 가스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특히 전국의 독거노인 세대를 중심으로 이 가스타이머 콕 제품을 무료 보급·설치하기 시작했다.

가스설비공사협의회는 가스안전공사 등 정부에 공급하는 품질 좋은 가스타이머 콕 제품을 선정하여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등록된 가구와 지역 복지기관에 등록된 독거세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550세대, 올해는 1천 세대 보급을 목표로 매



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약 850세대에 설치가 완료됐으며 12월까지 올해 목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이두형 위원장은 “가스타이머 콕은 누구나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기기 동작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존 중간밸브를 제거하고 전용밸브와 결합하여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가스관련 전문 기술자가 시공해야 한다”면서 “이 봉사활동은 우리 가스 회원사의 지역적·기술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독거 어르신들의 가스 안전을 위해 매우 기쁘고 보람된 마음으로 매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도회, 용인시 일대에 4개 지역에 설치

경기도회는 지난 11월 8일부터 일주일간 용인시 일대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해 100여개의 가스타이머 콕을 설치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석환 회장을 비롯해 이윤형 위원[대용산업건설(주) 대표], 오환영 위원[(주)중경엔지니어링 대표], 백수현 위원[대명건설(주) 대표], 김상재 위원[(주)대정이엔지 대표], 이병환 위원[(주)신정이엔씨 대표]를 비롯해 기흥노인복지관 임형규 관장 및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부천시 독거노인지원센터, 송산노인종합복지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회는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등록된 가구뿐만 아니라 지역 복지관 자원봉사자와 함께 직접 현장을 실시하며 설치가 필요한 세대 목록을 사전에 작성한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회 김석환 회장은 행사 개최식에서 “저희 어머니는 88세이고 시골에 계시는데, 복지관에 가서 놀다 오신다는 말을 여러차례 들었습니다. 오늘

매우 쌀쌀한 날씨인데 어르신을 위한 가스타이머 콕 설치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 마음이 매우 훈훈합니다”고 말하며 “저희가 준비한 작은 정성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가스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고 밝혔다.

가스타이머 콕 설치 대상 가구인 김○○ 할머니는 “타이머가 있어서 가스가 자동으로 잠기니까 편하고 너무 좋네요. 협회와 복지관 분들이 여기까지 신경을 써주니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좋습니다”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최○○ 할머니는 “나이 먹으니까 기억력도 없고 자주 까먹어. 전에 놀러 나갔다가 국 올려놓고 나간 걸 깜빡하고 큰일 날 뻔했어. 이제는 나갔다 하면 다시 확인하러 돌아오고 그래. 불 날까봐. 큰일 날까봐!” 라며 가슴 철렁했던 경험을 말했다.

경기도회 오환영 가스 재난재해예방 복구위원은 어르신들이 가스타이머 콕 사용법을 물어오면 자세하게 설명했다.

“쓰실 때 빨간 버튼 한 번 눌러서 쓰시면 되고, 가스를 다 쓴 뒤에도 빨간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되요. 혼동하지 마시고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저희가 20분을 설정했으니까 혹시



“빨간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가스타이머 콕 설치 후 기념품 전달

깜빡 하고 잊어버려도 자동으로 닫혀요. 이제는 외출하실 때도 가스 안 잠갔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혹시 기계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복지관으로 전화해 주시면 저희한테 연락이 올 거예요.”

경기도회와 협력을 맺은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에서는 현재 약 70여세대의 독거어르신을 관리하고 있다. 경기도회가 지역 설치 대상 가구로 선정된 세대는 정부관련 단체에서 가스타이머 콕 지원을 받지 못한 30세대다.

### 서울시회, 강동구 관내 가스안전 취약 세대에 설치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11월 28일 강동구청장실에서 무료 보급사업 출범식을 갖고 강동구 어르신청소녀와 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파악된 가스안전 취약 독거노인 100 세대를 대상으로 가스타이머 콕을 설치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태 위원[협창건설(주) 대표], 김경태 위원[(주)문화지엔코 대표], 조종택 위원[(주)금주이엔씨 대표, 서울시회 부회장을 비롯해 강동구 이해식 청장과 어르신청소녀와 직원 및 강동구 자원봉사자가 참석했다.

전달식에서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어르신들은 치매 증상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음식 조리하는 걸 잊어서 태우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간편하면서 안전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 있는지 몰랐다”면서 “협회에서 서울지역 중 강동구를 첫 설치지역으로 선정하여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가정에 지원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회 조종택 부회장은 “지역 복지관과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다행스럽게도 지원이 필요한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현재 모두 지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내동에 사는 이○○ 할머니는 “복지사 아줌마가 와서 가스 타이머 콕을 설치해주겠다고 이름을 적어가더니 정말로 왔다”면서 “가스밸브까지 하나 하나 신경써 주고 이전보다 훨씬 편리하고 세련되어 보인다”면서 기뻐했다.

최○○ 할아버지도 “빨간 버튼만 누르면 크게 손댈 필요가 없어 매우 좋아보인다”면서 “가스밸브가 높이 설치되어 있고 밸브를 돌리는 데 힘들어 불편했는데 이렇게 좋은 제품을 무료로 설치해줘서 고



2016년 독거노인 가스타이머 콕 및 휴대용 가스렌지 무료보급사업 출범식



맙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사회는 약 일주일 동안 성동구 일대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하여 설치작업을 마무리 했다. 함께 동행했던 지역 자원봉사 복지사는 설치 세대를 재방문하여 불편 및 개선사항을 취합하고 사용법을 다시 안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접수된 피드백 사항은 내년 서울특별시회 가스타이머 콕 사업 방향에 반영될 계획이다.

### 타이머 콕 설치는 물론 휴대용 가스렌지 보급 및 가스 사용시설 무상점검까지

가스설비공사협의회는 현재 타이머 콕 설치뿐만 아니라 가스배관이 들어오지 않는 세대의 경우 올

해부터 휴대용 가스렌지와 부탄가스 보급은 물론 가스밸브 및 노즐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과 기타 가스누출 등 안전점검 등과 함께 수건·우산 등 생필품도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지역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사들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같이 전문분야 종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독거노인 세대의 삶을 보살피는 모습을 보며 큰 신뢰를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 시·도회에서 개최되는 가스타이머 콕 보급 행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가스설비공사협의회 이두형 위원장은 “사회환원 차원에서 기부금이나 장학사업을 펼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전국적 인프라와 기술을 통해 사회에 재능기부를 할 수 있




전국 시·도회 서민층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 실시

는 봉사형태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에서는 지난 2015년 2월 정부에서 국가적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별 주체가 자체적으로 예방·구호활동 체제를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그해 5월 가스 재난·재해 대처를 위한 ‘가스 재난재해예방복구 운영위원회’를 전국 시·도회에 구성했다.

가스설비공사협의회는 가스 재난재해예방복구 운영위원회의 주기적 옹화와 상시적 대처 활동으로

가스안전 점검 활동 계획을 수립했으며, 전국 단위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결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됐다.

특히 이 사업은 가스안전공사 및 가스공급사,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지역 단체와 긴밀히 연계하여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언론에 모범사례로 회자되는 등 기계설비업계 홍보 및 위상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가스설비공사협의회  
이두형 위원장

### “기계설비 재능 나누면 협회 및 업계 위상 강화될 터”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을 다 돌아다니며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했는데, 만나는 분들마다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지난 시절 그 분들도 우리 사회의 큰 구성원이었는데 연세가 들고 사회생활이 불편하게 되어 외로움과 쓸쓸함을 많이 느끼고 계셨어요. 저희가 방문하면 금전적 이득보다는 사회가 그분들을 잊지 않고 같이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못 해주는 미안함도 들고 우리가 가진 특기를 통해 이 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드렸다는 만족감이 큼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독거노인 세대는 여러 봉사단체로부터 후원을 많이 받고 있지만, 제도권 밖의 정말 어려운 처지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협의회가 제도권 밖의 소외된 분들을 적극 찾아서 지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참된 기업가의 덕목 중 하나가 사회공헌입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도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사회에 환원코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타이머 콕 지원사업도 그 일환인데, 저는 이 사업이 우리의 특기를 국민에게 나눌 수 있는 재능기부로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업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소외된 분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늘리고 그분들에게 우리의 재능을 나누면 장기적으로 우리 회원사와 협회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은 작게 시작한 사업이지만 향후에는 전담 인원을 배치해 실질적으로 우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고 업종의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테마를 발굴하여 7천여 회원사 모두가 동참하는 협회의 큰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